

# 31사단 장병 629명 전우사랑 '마라톤 기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이등병과 사단장 함께 뛰어  
원주 1인당 1만원씩 기부



31사단 장병들이 지난 1일 열린 제54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 출발을 앞두고 태극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단채로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3·1운동의 정신계승을 다짐하고, 민족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등병부터 사단장까지 함께 뛰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31사단 소속 간부 277명과 병사 352명 등 총 629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출전한 모든 장병은 3·1절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가슴에 태극문양을 새긴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도심을 질주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특히 마라톤에 참가한 군 간부들은 땀 거리만큼 일정 금액을 기부했으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광주은행도 군인들의 기부 행렬에 힘을 보태기로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31사단 장병들은 하프코스, 풀코스와는 별개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해 다른 일반 참가자들과는 달리 비경쟁으로 하프와 풀코스를 소화했다.

하프마라톤에 도전해 상위권의 기록을 낸 소영민 31사단장은 "일제 강점기 망국의 설움을 대표하는 고(故)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지워진 일장기의 역사를 보면 마라톤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며 "100주년을 맞은 3·1절에 자주 국방을 대표하는 군인으로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단장과 함께 하프코스를 완주한 최재호 상병은 "하프코스를 완주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리릴 정도로 힘들지만, 3·1절 100주년의 뜻을 되새기며 전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김성운 일병은 "첫 마라톤 도전이라 그런지 힘들긴 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뛰어 완주할 수 있었다"며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군 생활의 멋진 추억이 될 듯하다"고 하프 완주 소감을 표현했다.

올해 버킷리스트였던 풀코스 마라톤 완주에 성공한 이덕규 상병은 "평소 걸려온 체력도 시험해 보고, 3·1절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달리니 100년 전 선열들의 숨결을 느끼는 기분이라서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다음 풀코스 도전에선 4시간대 기록 돌파를 목표로 삼겠다"며 활짝 웃었다. 이 상병은 이날 풀코스를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질주한 끝에 5시간 5분만에 완주했다.

병사들과 하프코스를 완주한 신재은 하사는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오늘 얻은 성취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국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정지영 대위는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를 통해 100년 전 3·1운동의 함성이 장병들의 가슴에도 전해진 듯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원들과 함께 꾸준히 체력단련을 해 다시 한번 마라톤에 도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지킨 소영민 31사단장은 완주 장병과 일일이 기념사진

을 찍는 등 끈끈한 전우애도 다졌다.

한편, 31사단 간부들은 땀 거리만큼 일정금액을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에서도 완주한 병사 1인당 1만원을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에 기부하는 등 31사단의 의미 있는 기부활동에 동참했다.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은 육군에서 복무 중 전사, 순직 또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복무 중인 현역장병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유자녀 장학금 지급, 기념비 건립 등 추모 사업에 사용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선박 음주운항 심각...연평균 100건 적발

목포·여수, 부산보다 많아  
5년 530건 중 어선이 341건

전남지역 선박들의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은 총 530건이 적발됐으며, 연평균 100건 이상이었다.

해경이 배치된 19개 지역 중 통영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목포(60건), 인천(54건), 여수(51건), 부산(40건) 순이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3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레저기구 55건, 예선 및 부선 48건, 낚시어선 19건, 화물선 9건, 유·도선과 여객선이 각각 3건이었다.

총 530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측정기부 30건을 제외한 500건 중 자동차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된 건수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적발에 따라 '형사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43건(64.7%),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7건(35.3%)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5년간 총 66건이었으며, 이 중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 등 7명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범죄악용·화재 우려' 전국 공·폐가 일제점검

경찰·지자체·소방서 합동  
4월 19일까지 8만9227곳

경찰청은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 등이 큰 각 지역 빈집(공가·폐가)에 대해 4일부터 4월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소방·시설주 등과 합동으로 범죄예방진단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공·폐가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해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에 쓰일 수 있고, 노숙인이 머물다 불을 낼 가능성도 있는 등 주민 불안 요소로 지적돼 왔다. 경찰이 점검하는 전국 공·폐가는 8만9227곳에 이른다.

경찰은 예방진단 결과 별도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논의를 거쳐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범죄통계를 분석해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범죄 취약지역이 확인되면 지자체·시공사·시설주 등과 함께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필요한 공·폐가 철거를 권고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체와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정비사업 등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취약지역에서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은 물론 필요한 기동대·방범순찰대 등까지 순찰에 투입하고,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이 확인되면 112상황실·형사·여성청소년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9 달뜨기 05:44  
해질녘 18:30 달질 16:17

#### 마스크 준비하세요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    |        |      |     |        |      |
|----|--------|------|-----|--------|------|
| 광주 | 흐린뒤 맑음 | 7/16 | 보성  | 흐린뒤 맑음 | 4/15 |
| 목포 | 비온뒤 갠  | 6/11 | 순천  | 흐린뒤 맑음 | 8/17 |
| 여수 | 비온뒤 갠  | 7/15 | 영광  | 흐린뒤 맑음 | 3/12 |
| 나주 | 흐린뒤 맑음 | 5/16 | 진도  | 비온뒤 갠  | 6/11 |
| 완도 | 비온뒤 갠  | 7/15 | 전주  | 흐린뒤 맑음 | 6/15 |
| 구례 | 흐린뒤 맑음 | 6/16 | 군산  | 흐린뒤 맑음 | 4/13 |
| 강진 | 흐린뒤 맑음 | 6/16 | 남원  | 흐린뒤 맑음 | 5/15 |
| 해남 | 비온뒤 갠  | 4/12 | 흑산도 | 흐린뒤 맑음 | 5/12 |
| 장성 | 흐린뒤 맑음 | 5/16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5 |
| 남해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북~북동 | 1.5~3.0 | 북서~북 | 1.0~2.5 |

#### ◇생활지수

|      |    |
|------|----|
| 보통   | 보통 |
| 뇌졸중  | 보통 |
| 감기   | 보통 |
| 미세먼지 | 나쁨 |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06:15 | 00:46 |
| 18:57 | 13:34 |       |
| 여수    | 01:54 | 08:33 |
|       | 14:34 | 20:26 |

#### ◇주간 날씨

| 5(화) | 6(수) | 7(목) | 8(금) | 9(토) | 10(일) | 11(월) |
|------|------|------|------|------|-------|-------|
| ☁    | ☁    | ☀    | ☀    | ☀    | ☁     | ☀     |
| 3/17 | 6/13 | 2/12 | 1/13 | 1/14 | 5/12  | 4/12  |

## 개학일에 마스크 쓰세요...초미세먼지 '나쁨'

개학시즌인 이번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부터 영상권에 드는 등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는 4일 하루 동안 미세먼지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오후 9시까지 짝수차량 운행 등을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과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돼 제주와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소식이 없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영상 4도, 낮 최고 기온 10-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4일 서해남부, 남해 서부 등 일부 해상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서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3개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 서구는 "고용노동부의 '20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비 2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육 육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달 26일 송원대

학교산학협력단과 조선간호대학교산학협력단, 소프트웨어코딩교육협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서구 관계자는 "참여해 모집 기간에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지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양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